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김건희 씨 코바나 ‘고갱전’ 개최도 ‘거짓’ .. 상습적 허위 기재 까르띠에전 · 반고흐전 · 앤디워홀전 · 샤갈전에 이어 5번째

- 현안대응 TF, 코바나컨텐츠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전’ 개최 역시 공동주최, 주관 아니며 계약한 내용 없다는 서울시립미술관 답변 확인... 까르띠에전 · 반고흐전 · 앤디워홀전 · 샤갈전에 이어 5번째
- 김승원 단장, “김 씨의 허위경력, 허위학력, 허위수상경력도 모자라 주최, 주관도 아닌 전시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개최’ 로 버젓이 적어내며 상습적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주가조작, 처가 부동산비리 등 각종 범죄 의혹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윤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 없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했다고 밝힌 2013년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전’ (이하 고갱전)도 서울시립미술관 답변을 통해 코바나컨텐츠 주최/주관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윤석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문) 29. 배우자가 경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설립 연혁(전시회 개최내역 상세 명시)

○ 주요 전시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까르띠에 소장품전’(덕수궁 미술관)
- 2009년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전’(서울시립미술관)
- 2010년 ‘뮤지컬 미스사이공’(충무아트홀 대극장 등)
- 2010년 ‘색채의 미술사, 샤갈전’(서울시립미술관)
- 2012년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전’(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2012년 ‘불멸의 화가, 반고흐 in 파리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2013년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전’(서울시립미술관)
- 2013년 ‘세기의 인물과 날다, 필립 할스만전’(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2015년 ‘마크 로스코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 2019년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전’(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측은 고갱전의 공동주최사·주관사에 코바나컨텐츠가 없음을 확인하며,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전’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이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와 계약한 내용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고갱전' 코바나 개최 관련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답변

2013년 6월 14일~2013년 9월 29일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이후展'의 코바나컨텐츠 주최/주관/제작 투자 여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展'의 계약서 기준 주최사, 주관사, 후원사

- 공동주최(변경전) : 서울시립미술관, (주)한국일보사
- 공동주최(변경후) : 서울시립미술관, (주)한국일보문화사업단
- 주 관 : (주)한국일보 문화사업단

○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리고 그 이후展'에 대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이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와 계약한 내용은 없음. 끝.

한편,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익명의 선대본부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또 다른 작전주에 투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N사와 공동주관 전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자들에게 “공동 주관이나 주최가 되려면 실제 전시회에 관여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현안대응 TF 김승원 단장은 “국민의힘 관계자의 이 답변이야말로 주최나 주관 이 아닌 까르띠에전·반고흐전·앤디워홀전·샤갈전·고갱전에는 김 씨와 코바나컨텐츠가 실제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그간 수차례 제기된 김건희 씨의 전시회 개최 의혹에 대해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행태로 일관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인들의 해명으로 자가당착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씨의 허위경력, 허위학력, 허위수상경력도 모자라 주최, 주관도 아닌 전시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개최’로 버젓이 적어내며 상습적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주가조작, 처가의 부동산비리 등 각종 범죄 의혹을 비호하기에 급급한 윤 후보에게 대통령 자격은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 앞에 물타기 해명이 아니라 허위의 달인, 비리의혹 종합세트 배우자를 비호하고 거짓을 일삼은 것에 물타기 사과라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끝